

한성숙 국무총리, 중소기업계 초청하여 삼청동 공관에서 오찬간담회 개최

-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곳 초청하여 최근 경영여건 및 정책제안 청취 -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9일(일) 서울 삼청동 공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졌다.

- (일시/장소) 7.19(일) 12:00~13:20 /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
- (참석) 국무총리,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,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,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,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창숙 회장,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,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,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

○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,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·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.

○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오찬을 가지며 중소기업계의 현장 경영 여건과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.

□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많은 도움을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, “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2026년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사자성어인 자강불식(自強不息)의 자세로 멈추지 않고 단련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“중소기업계를 가장 우선하여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”며, “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화답했다.

-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계와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, 벤처·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벤처생태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
- 이에 한 총리는 “산업·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·벤처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퍼져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며,
-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- 아울러, 한 총리는 “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임상규 (044-200-2221)
		담당자	사무관 김두현 (044-200-2223)